

“투명·공정·화합으로 10년 기틀 구축... 위기극복 견인차 될 것”

소공연 10주년 ‘환골탈태’ 선언
송치영 회장
“소상공인 위한 전문은행 설립
대기업의 ESG 지원손길 필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연합회기를 흔들고 있다. /소공연

창립 10주년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소공연 10년 역사를 계승해 부족한 부분은 함께 포용하고 개선하는 화합의 자세로 연합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원팀이 돼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키워 나가겠다”면서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든든하게 구축해 나가며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에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소공연은 2014년 2월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해 4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다.

송 회장은 지난 8월29일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회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가진 기

간담회에서도 “회장직을 수행한지 2개월이 됐는데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거 등의 과정에서) 내부 갈등은 어느 단체나 있는 것이다. 조직 안정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정부·후·포장이나 연합회 관련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전문공제조합 도입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 구축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도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은행 설립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은행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또 최근 바람이 불고 있는 대기업 등의 ESG경영 지원 손길이 소상공인에게도 닿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기업의 ESG 사업들이 있는데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을 향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상생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원과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자금줄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친화형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 회장은 “경제가 잘 되면 상관없지만 어려울 땐 방법이 없다. 지역별,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최저임금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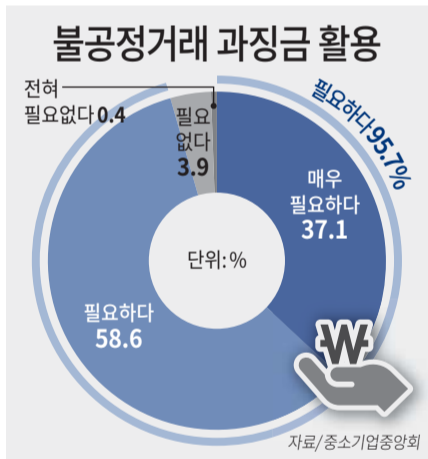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그리고 전임 회장 출신인 최승재 중소기업음부즈만, 오세희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 회장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나가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 86%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미흡”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700곳 조사
기업 93%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
불공정거래 경험사 90% “대처 못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행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곳 중 9곳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가 거둬들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10곳 중 9곳에 달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9%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또 92.7%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57.2%)하거나,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42.1%)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90.5%는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응답으로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37%)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7%)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징금 활용’을 묻는 질문에는 95.7%가 ‘피해기업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왼쪽 2번째부터)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가입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비대면 가입 지원

카카오뱅크와 맞손

중기중앙회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고객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현재 재적가입자는 177만명에 달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792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인천항만공-동반위, 협력사 ESG지원 맞손

협력기금 5000만원 출연

인천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항만 공공기

관 최초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어서 올해도 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 인천항만협력사들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

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과 진단, 현장실사(컨설팅)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곤 동반위위원장은 “이번 동반위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각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항의 ESG 경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복지지원 앞장

롯데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롯데호텔과 함께 회원사 복지 지원에 나선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11일 호텔롯데와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회원사 혜택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메인비즈협회에선 김명진 회장, 권영학 상근부회장 등이, 호텔롯데에선 김태홍 대표, 김상민 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메인비즈협회 전용 객실 패키지 상품 기획 ▲회원사 네트워크 활용 호텔 브랜드 및 마케팅 공동 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는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 롯데호텔 서울, 월드, 부산, 울산, 제주의 객실 및 제반시설 등을 전용 특별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롯데시티호텔과 L7 호텔 바이 롯데, 롯데리조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